

승무 명인 범우 송재섭에 관한 연구

최석권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전수교육조교
e-mail:csk1544@hanmail.net

The Life Histories of Beop woo Song Jae Seob, Master of Seung mu

Suk-Kwon Choi

Daej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5
SeungMu Heritage Skills Teaching Assistant

요약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 송재섭의 생애사 연구이다. 범우 송재섭은 2004년 4월30일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송재섭의 승무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남성적인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범우 송재섭의 삶을 통해 그의 승무를 이해하고자 한다.

1. 서론

범우 송재섭은 2004년 4월30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송재섭의 승무는 우봉 이매방선생의 호남특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범우 송재섭만의 자연미가 드러나 있다. 그의 춤에는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과정을 춤사위에 풀어냈다는 것이다. 범우 송재섭 승무는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의 미학을 담고 있다. 빈 여백을 느끼게 하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춤을 대표하는 승무의 예술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예능보유자인 범우 송재섭의 생애를 통해 승무의 미적,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이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연구를 대상자들의 세심한 감정이나 변화, 생각 등은 양적방법인 설문지의 문답으로는 알기 어렵고 계량화시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술적 경험 혹은 예술적 가치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통해 예술적 경험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데

장점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송재섭이며 연구 질문을 통해 생애사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결론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범우(法雨) 스님은 1948년 대전시 용운동 산23-1번지에서 은진(恩津) 송씨(宋氏) 안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열여덟 살의 '송재섭'은 민속춤을 접하며 춤을 배웠다고 한다. 조계종의 스님으로부터 작법과 범패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예능보유자인 송암(松巖), 1915~2000, 속명 박희덕(熙德)) 스님에게서 범패, 바라춤, 범고무 등 불교의식에서 공양의 의미로 스님들이 추는 춤인 작법무(作法舞)를 사사했고 뒤이어 고(故)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생전에 승무와 살풀이춤, 영산재보존회로부터 영산재 작법무를 각각 이수했다.

승무 명인 범우 송재섭은 승무는 한국춤의 정수라고 하였다. 승무는 우리 민초의 정서적 삶을 녹여 내고 있으며, 민족의 철학을 바탕으로 계승되고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2004년 4월 30일 범우 송재섭 승무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인정하여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를 채택하였다. 예능보유자인 송재섭의 승무는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모두 담겨져 있는 종합예술이라

고 할 수 있다. 승무는 예쁜 춤사위라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한과 열이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이며 우리민족의 역사라고 하였다. 이러한 승무를 범우 송재섭은 전승하고 있으며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후학을 양성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승무는 격변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恨)의 역사를 대변하며 현재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민속춤으로 송재섭의 승무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Dongsoong Han, University Education and Conten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42, pp9-24, 2016.
- [2]Na-Rae Bae, Study of an Effect of Korean Dance for Middle-Aged Womens as a Culturel Welfare,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pp186-192, 2016.
- [3]Bo Rahm Suh, Ha Rim Jang, Taik Soo Hy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 Journal of kapahistory, 29, pp. 95-124, 2011